

상록탑

여행의 참된 의미

이번 겨울방학동안 필자의 SNS 타임라인에서 대만, 중국, 유럽, 일본 등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의 사진으로 가득 찼다. 이제는 방학 때 해외나 국내로 배낭여행을 다니는 것이 필수 코스가 된 듯하다. 취업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학에 해외보고 싶은 대학생 1순위로는 바로 해외 배낭여행이다. 최근 방송사 tvn에서 연예인들이 배낭여행을 가는 <꽃보다 청춘>시리즈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 여파로 배낭여행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남미래
편집국장

“**남들 따라가는 여행, 진정한 여행의 본질 해칠 수 있어**”

배낭여행은 배낭을 메고 경비를 절약하며 다니는 여행이다. 해외 배낭여행은 돈이 없어서 혹은 말이 안 통해서 고생도 해보고 해외의 문물을 접하며 식견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TV 혹은 책,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곳을 실제로 보고 싶어서 떠나기도 한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보는 것의 의미가 더 깊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 배낭여행의 경험이 자기소개서에 쓸 한 줄 경험으로 타락하기도 했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해외여행이 인생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 스펙이 된 것

이다. 심지어 100% 취업을 보장해준다는 취업 풀코스 학원의 선발기준은 3.5 이상의 학점과 알바, 공모전 경험뿐만 아니라 배낭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다. 해외여행을 자신이 정말 가고 싶었던 여행지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들이 다 가는 여행에 남들 따라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행경비를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아르바이트 경비를 돈을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 및 교육비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연이율은 10~12.5%로 한 달 평균 유럽여행 비용 500만원을 대출받았을 때, 1년마다 62만 5000원의 이자가 붙는 것이다.

남들이 가기 때문에 가는 배낭여행은 여행이 아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위한 여행이 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생들은 과제와 시험에 바쁜 학기를 마치고 방학 때는 계절 학기를 듣거나 자격증 시험이나 영어 시험공부를 하기 바쁘다. 갑갑한 도서관에서 벗어나 여행을 가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남들이 다 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혹은 자기소개서에 쓸 한 줄의 이야기 때문에 가는 해외 여행은 '휴식'을 위한 여행이 아니다. 여행을 가는 목적은 저마다 다양하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견문을 넓히는 즐거움을 위해 많은 대학생이 해외로 여행을 간다. 하지만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뒤따라서 수백만 원을 부모님에게 돈을 받거나 대출을 받는 여행은 지양해야 한다. 여행의 본질을 깨닫고 바쁜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진짜', '나를 위한' 여행이라는 인생의 싹표를 짚어보는 것은 어떨까.

학생 칼럼

새 학기와 대학생의 시간빈곤

새 학기의 날이 밝았다. 누군가에게는 대학생 생활을 시작하는 두근거리는 학기, 누군가에게는 휴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학기, 또 누군가에게는 이화를 떠날 준비를 하는 마지막 학기일 것이다. 우리는 각자 취업을 위한 'N대 스펙'의 N이 5종, 7종, 10종 등 갈수록 추가되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한 학기를 계획한다.



유가환
사회13

“**우리를 옴아매는 시간빈곤, 탈경쟁으로 벗어나자**”

학기 초에 학교 게시판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글이 있다. '21학점+과의 2개+대외활동+동아리 가능할까?'와 같은 제목의 글이다. 이러한 살인적인 일정의 질문에 불가능, 작년에 내가 해봤는데 가능하다 등의 친절한 답변이 달린다. 많은 이화인들은 지난 학기동안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그리고 학점관리까지 쉬지 않고 병행해왔을 것이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체력을 소모하기도 했을 것이고, 우울해지기도 했을 것이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정에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지도 모른다.

더 자격증 시험이라도 신청하게 되곤 했다. 작년 10월에 진행된 모 아르바이트 사이트의 대학생의 시간빈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9%가 '바쁜 일상 속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쉬면 취업, 전문대학원 입학 등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밀려날까 불안하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활동들의 늪에 빠져있다 보면, 반드시 어느 하나는 놓치게 마련이다. 우리에게 헤르미온느의 '시간을 돌리는 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멀티태스킹 보다는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지만, 급한 마음에 자주 이런저런 일들을 시작하고, 시간의 공백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다.

사실 '시간 빈곤' 이슈는 대학생보다 장시간 근무를 하는 직장인에게 더욱 통용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많은 대학생들이 매우 시간이 모자란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취직을 하더라도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우리는 하지만 어쨌거나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장시간 근무라도 하는 '정규직'을 꿈꾸며 더욱 자신의 시간을 줄라맨다.

이처럼 한국 전체의 시간빈곤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에게서 시간을 착취해가는 '무한경쟁사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물론 좁은 영토에 많은 인구가 사는 탓에 피 터지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우리이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어릴 때부터 확립된 기준의 시험으로 등수를 받아보는 문화에서 학습된 우리에게, 사실 어떤 기준을 세워 줄 세우고, 평가하고, 우위에 서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고 익숙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가 결국 우리를 갇아먹고 자살률 1위의 사회로 만들고 있다. 먼저 성공에 대한 획일화된 기준을 다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의 성취도 성공으로 인정하는 것, 사회의 기준을 벗어난 것 같은 시도와 행위를 비난하고 무시하지 않는 것. 그러한 상호인정의 사회가 곧 누군가의 우위에 서있지 않더라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 믿는다.

여론광장

나를 바라보는 방법

2016년 새해는 두 시간 빨리 맞이했다. 새해 첫날 나는 날짜변경선에 가장 인접한 나라 호주에 있었다. 새로운 설렘과 다른 한편의 불안감이 뒤섞여 일었다. 나는 올해 4학년이 됐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늘 헤맸다. 누가 이끌지도 않았는데 정처 없이 어딘가로 발을 내딛듯, 따라서 대학 생활이 1년 남은 지금 내게 남겨진 숙제는 나의 위치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치열하게 모색하는 것이다. 겨울 동안 여행 겸 교환학생으로 호주에서부터 싱가포르, 그리고 캄보디아를 바쁘게 오갔다. 기나긴 여정 동안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숙제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에게 묻든 새로운 관점 속에서 나는 매번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내려 준 숙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생각의 과정을 거쳤다. 그 첫 단계는 이랬다. 일단 나를 규정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했다. 인종, 성별, 부모님의 재력 등... 그 결과 몇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첫째는 이들 대부분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안고 있던 것들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내가 방문한 나라마다 이들이 발휘하는 힘의 세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으로

서의 내가 각 나라에서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호주, 싱가포르,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나는 한국인이었지만 그들의 눈에 비추어지는 나는 달랐기 때문이다. 인종, 성별 등 특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것은 내가 갖고 태어난 것을 온전히 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겨울 동안 나를 찾고자 많은 시간을 보냈고 아직도 나를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방법을 깨달았다. 나는 나에게 인종, 성별의 벽을 넘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벽을 넘으라는 것은 자신 안에 어떠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나는 갖고 태어난 것 안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김지민(경제13)

사설

등록금 문제, 학교-총학간의 소통 필요해

올해 본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1월5일부터 1월21일까지 4차에 걸쳐 끝이났다. 결과는 학부 등록금은 동결, 대학원 등록금은 1.7%인상이다.

고려대 또한 학부 등록금이 동결로 마무리 됐지만, 본교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고려대 박세훈 총학생회장 등이 포함된 학생위원 측은 2월22일 당시 4차 등심위 회의에서 등록금 인하를 주장했다. 예비비와 순적립액을 재원으로 등록금 2.9%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위원 6인과 총장추천 회계전문위원 1인이 동결에 찬성하며 올해 등심위는 등록금 동결로 마무리 됐다. 고려대 총학은 이번 결과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학생들은 학교 위원의 퇴장을 가로막으며 올해 등록금 동결 결정에 항의했다.

이에 반해 본교는 이번 등록금 동결에 별다른 움직임이나 반발이 보이지 않는다. 본교 총학은 올해 4차례의 등심위를 모두 불참했다. 총학이 학생 측 위원과 학교 측 위원의 동수 구성, 등록금 책정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 개선 및 검토 시간 보장, 등록금 인하 등의 4대 개선 요구안을 학교 측에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총학이 등심위에 불참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총학은 요구안을 들어주지 않고 열리는 등심위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위원이 빠져도 회의 중측 조건인 과반수에 도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총학의 등심위 참석은 더욱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고려대 등심위의 경우도 본교와 상황이 비슷하다. 학생 위원 수와 학교 위원 수 구성의 불균형으로 고려대 총학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본교 총학과 달리 등록금 인하를 위해 등심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여전히 본교의 등록금은 높은 수준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본교는 작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순위에서 약 845만원으로 10위를 차지했다. 특히 예체능 계열 단대의 등록금은 매우 높다. 본교는 작년 4년제 대학 예체능 계열 연간 등록금 부문에서 약 994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올해 등록금은 동결이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등록금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가질 것이다. 학교 측과 총학은 올해 학부 등록금 동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등록금 책정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때다.



금주의 책



빅데이터 인간을 해석하다 크리스티안 루더 지음, 서울: 다룬, 2015. 빅데이터 시대가 시작된 오늘날에는 자료 그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하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미국 최대 데이터 사이트 OK 큐피드 설립자이자 정보분석가인 저자는 데이터 사이트 운영자답게 1000만 회원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람들이 이상의 나이, 외모, 정치성향 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소개합니다. 또한 SNS에서의 친구관계, '좋아요'를 누르는 행동 등을 분석하여 언어사용 수준, 남녀간의 만남, 인종적 차이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동안 어렵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빅데이터를 쉽고 재미있게 접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화인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대 도서관 좋은 책 추천위원회-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 입기도서 155.28 R831d한]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미생 :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2012-2013
2	(KBS) 한국어능력시험	한국방송공사, 한국어연구회, 한국방송공사, 한국아진출원.	넥서스 : 형설출판사	2006-
3	(Hackers) 해커스 토익 실전 1000제 : reading 2	해커스어학연구소	해커스어학연구소	2011
4	(정령왕) 엘리네스 : 이환 판타지 장편소설	이환	마야	2005-2006
5	아도니스 : 남해인 장편소설	남해인	동아	2015
6	太白山脈 : 趙廷來 大河小說 제3판	조정래	해냄	2001
7	금검지 : 臥龍性正統武俠小說	와룡생	한아름	1993
8	드래곤 라자 : 이영도 장편소설	이영도	황금가지	1998
9	(강신주의) 감정수업 : 스피노자와 함께 배우는 인간의 48가지 얼굴	강신주	민음사	2013
10	청소년 삼국지	나관중	이름	2004
11	(무한도시) No. 6	아사노 아즈코	카멜레온 : 까멜레옹 : 비룡소	2009-2011
12	괴델, 에셔, 바흐 : 영원한 황금 노끈	Hofstadter, Douglas R.	까치	1999
13	황제의 외동딸 : 윤술 장편소설	윤술	파피루스 : 디앤씨 미디어	2013
14	(2013 시나공)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실기	길벗 R&D	길벗	2012